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주요은행 신용등급 강등

이경아 연구원

-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16일 유럽과 미국의 7개 주요 투자은행들의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프랑스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와 독일 도이체뱅크(Deutsche Bank)의 장기신용등급은 'A+'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A'로 한 단계씩 강등되었으며, 영국 바클레이(Barclays)와 스위스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는 'A'로 두 단계 강등되었음.
 - 소시에테 제네럴(Societe Generale)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경우 장기신용등급의 변화는 없었으나 독자적 생존등급(viability rating)¹⁾이 하락하였음.
- 피치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를 개별 은행들의 신용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발견되어서라기보다는 현재 대형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음.
 - 피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상황은 완화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변동성이 역사적 평균치를 넘어서 한 동안 유지되고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금유통이 저조한 경제활동과 높은 자본조달 비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은행들이 자본확충과 유동성 안정장치 마련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금융규제가 은행들의 잠재 이익원을 제한하고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투자은행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음.
-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비교적 침착한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대부분 은행주는 특별한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보합에 머물렀음.
 - 은행 애널리스트인 브루스 팩커드(Bruce Packard)는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투자자들 또한 이번 정보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1) 이는 피치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뢰도 회복을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한 신용평가 방법론에 따른 등급으로 은행의 '내재적 재무강도(intrinsic financial strength)'에 대한 측정치임.

- 이는 “자본조달 비용이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유럽 중앙은행(ECB)의 개입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The Financial Times, 12/16)